

# 빚장 푸는 은행들... 전세대출 '숨통'

### 카카오뱅크 금리 0.20%포인트 인하... 5대 은행 대출 규제 완화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상향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빚장을 풀면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시중은행들이 5개월 만에 다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는 추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0.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최저금리는 2%대로 떨어졌다. 이날 기준 일반 전월세 대출은 2.882%다.

카카오뱅크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또는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

세보증금의 최대 80%,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역시 전세자금 대출 문턱 낮추기에 동참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여기에 전세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 지급일 이후로 늘리고, 그동안 제한해온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

하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도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25일부터 적용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및 비대면 전세대출 재개는 각각 지난 1월과 3월 초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한다. 신한은행은 또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외에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게 됐다.

이처럼 금융권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가계대출의 빚장을 푸는 것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제한 등 압박과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대출이 줄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계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 공약 등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비대면 적금 출시 1년제 최고 연 2.4% 금리

광주은행은 기존에 은행거래가 없어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전용 '쏟아진MY디지털적금'은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적금상품은 최근 3개월 동안 광주은행 예·적금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연 0.20%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상품서비스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해도 연 0.20%포인트 금리를 제공하면서 총 연 0.4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쏟아진MY디지털적금'은 1년제 또는 2년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적입 가능하다.

우대금리 연 0.40%포인트 적용 때 최고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연 2.40%(자유적립식 연 2.20%) ▲2년제 정액적립식 연 2.60%(자유적립식 연 2.40%)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소상공인에 '이자 보전' 저금리 은행대출 1년 연장

### 우대금리 1.5%→2.5%로 "시장금리 상승세 등 고려"

정부의 이자 보전으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사업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이자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중은행 이자보전대출 사업은 재정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에게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출시된 이래 한 차례 만기 연장을 거쳤다.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1%포인트 오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세와 프로그램 연장률 등을 고려해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되 우대금리는 2.5%로 조정했다"며 "지난 연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에 우대금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적용 금리는 2~3%대이며, 대출 잔액은 현재 7조원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처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존에 신보는 보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부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따라 대출을 일시 회수하는데, 지난해 2월부터는 부실 처리를 유보해왔다.

정부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6조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은 영업시간 제한 사업자 등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총 10조원 규모로 1~1.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슬림핏' 출시 삼성전자 모델이 25일 출시된 2022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슬림핏' (오른쪽)과 '무풍에어컨 클래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제품 모두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소비자들의 전기 부담을 덜어주며, 국내 에어컨 최초로 친환경 냉매 R32를 적용하고 일회용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솔라셀 리모컨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 LH, 12만4천호 신규 입주자 모집

### 지난해보다 6000호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동주택 15만호와 3만4000호에 달하는 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18만4000호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중 올해 LH가 직접 신규 입주자 모집을 하는 주택은 12만4000호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신규 공급분량인 11만8000호 대비 약 6000호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2만5000호를 공급하며, 경기 성남 북정 등 8개 단지에서 분청약도 진행한다. 건설입대는 총 3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주택 2000호 등 총 5000호는 기존 일정 대비 약 1년간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총 3만호가 공급되는 가운데 이중 4000호는 무주택 중산층에 최대 6년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으로 내놓는다.

전세임대 공급분량은 3만4000호로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LH는 올해 공공 사전청약 공급분량의 81%인 2만6000호를 대상으로 사전청약도 받는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3만4000호 건설 분량의 공공택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은, 6개월 연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최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조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으며 법무·회계·세무와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